

전체 ☀️ 신선 ☁️ 가공 ☀️ 수산 🌊☀️



농수산물 수출

124

Zoom In

I	농촌진흥청, 수출 기술 신속 지원으로 현장 문제해결 나서
II	한국산 토마토, 대(對) 일본 수출검역요령 제정이달의 신간 -
III	아태지역 식물검역전문가, 국제기준 논의 위해 모였다

- '24년 7월 농림수산물 수출은 전년 대비 7.1% 증가한 7,367.6백만불
 - (신선) 버섯류(21.4, 5.5%↑), 김치(96.8, 3.7%↑) 등 증가, 과실류(166.2, △6.6%), 채소류(162.7 △9.5%), 인삼류(139.0, △0.7%) 감소
 - (가공) 면류(848.5, 29.2%↑), 음료(387.6, 11.8%↑), 과자류(424.2, 14.7%↑), 낙농품(94.2, 7.5%↑) 등 증가, 주류(200.9, △7.5%) 감소
 - (수산) 김(637.0, 34.8%↑), 참치(345.8 7.5%↑) 증가, 굴(57.9, △9.3%), 고등어(27.5, △33.2%), 명태(21.2, △26.8%) 감소
- * '24년 7월(누계) 국가산업 전체 수출액은 9.8% 증가한 3,925.0억불

< '24년 7월(누계) 부류별 수출실적 >

(단위 : 천톤, 백만불, %)

구분	'23년(연누계)		'23년 7월(A)		'24년 7월(B)		증감률(B/A)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체	4,915.3	12,010.8	2,792.8	6,876.6	2,997.4	7,367.6	7.3	7.1
□ 농림축산식품	4,151.2	9,022.3	2,361.6	5,133.4	2,590.9	5,591.1	9.7	8.9
○ 신선	497.7	1,486.5	297.8	822.5	328.3	805.8	10.2	△2.0
○ 가공	3,653.5	7,535.9	2,063.7	4,310.9	2,262.6	4,785.3	9.6	11.0
□ 수산물	764.0	2,988.4	431.3	1,743.2	406.5	1,776.5	△5.8	1.9

- (국가별) 아세안(1,476.8백만불, 5.0%↑), 미국(1,174.9, 21.0↑), CIS·몽골(338.9, 24.7↑), EU·영국(541.7, 31.0↑) 증가, 일본(1,190.0, △3.2), 중국(1,136.5, △5.8) 감소
 - (아세안) 신선(딸기, 돼지고기), 가공(라면, 음료), 수산(김, 참치) 등 전반에 걸쳐 수출 증가
 - (미국) 고물가 지속으로 가성비 제품 선호 현상이 커지며 한국 농식품 소비증가
 - (CIS) 국가 경제 활성화 및 한류 인기로 현지 유통체인 입점 강화 등 수출 증가
 - (유럽) 호레카 관련 수요 확대 및 수출 고비중 품목(참치, 수산의 55.9%) 수요 증가
 - (일본) 외국인 소비 확대로 수산은 증가했으나 엔저 지속 등 경기침체로 수출 감소
 - (중국) 수출상위품목(라면, 인삼 등)수출 호조이나, 수산 식품 역기저 효과 등 수출 감소

< '24년 7월(누계) 주요국 농림수산물 수출 현황 >

(단위 : 백만불, %)

국가	중화권	일본	미국	아세안			EU (영국포함)	CIS (몽골포함)	러시아	
				베트남	태국	인니				
'23.7월(A)	1,714.2	1,229.6	970.6	1,406.2	477.4	288.3	182.2	413.4	271.7	160.7
'24.7월(B)	1,652.7	1,190.0	1,174.9	1,476.8	486.0	307.2	187.0	541.7	338.9	201.4
증감률(B/A)	△3.6	△3.2	21.0	5.0	1.8	6.5	2.6	31.0	24.7	25.3

농진청 이슈



농촌진흥청, 수출 기술 신속 지원으로 현장 문제해결 나서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8월 7일 본청 국제회의장에서 지방 농촌진흥기관 관계관과 신선농산물 수출통합조직, 생산자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출 연구·개발(R&D) 신속 지원 첫 기획(킵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연구 결과 가운데 수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신속하게 적용하고자 신설한 '농식품 수출 기술 신속지원단'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농식품 수출 기술 신속지원단은 그동안 품목별, 분야별로 여러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대응하던 문제를 종합해 총괄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수출 연구·개발(R&D) 기술을 적재적소에 적용함으로써 수출단지의 문제점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농촌진흥청과 도 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전문가로 수출 품목별 12개 전담팀(팀당 2~4인)을 구성해 수출단지에서 발생하는 문제해결에 신속히 대응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출 과정이나 기술 전문 상담(컨설팅) 과정에서 해결하지 못한 기술적 문제는 내년 초 연구과제 기획 단계에 적극 반영해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농촌진흥청은 수출 현장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수출지원 체계를 지역 수출 유망단지(18개소)와 프리미엄 수출단지(5개소)로 나누어 각 단지의 특성에 맞춘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 수출 유망단지 관련해서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단지 맞춤형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수출 역량이 높은 프리미엄 단지를 중심으로 수출국별 고급 시장 진입을 목표로 재배 단계부터 소비까지의 모든 과정에 걸쳐 기술지원을 하고 있다.

이를 강화하기 위해 23개 수출단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세부 기술지원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2016~2023년까지 개발된 기술을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서효원 차장은 "수출 기술 신속지원단을 통해 청이 개발한 연구 결과를 현장 상황에 맞게 확산하고, 추가 문제는 후속 과제 등으로 추진해 수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케이(K)-농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높ی겠다."라고 밝혔다.



☆ 농진청 이슈 문의 ☆ 농촌진흥청 수출농업지원과 063-238-0673

식물검역 이슈



한국산 토마토, 대(對) 일본 수출검역요령 제정



◇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24. 8.29일 국산 토마토의 일본 수출을 위한 「한국산 토마토 생과실 등의 일본 수출검역요령」 고시를 제정·공포했다.

◇ 토마토 생과실 재배농가 및 수출선과장은 검역본부에 등록하여야 하며, 외부로부터 해충 유입을 막기 위해 지름 1.6mm 이하의 망을 재배시설 내 창문, 환기구 등 개방된 부위에 설치해야 한다. 또한, 식물검역관

이 수확 2개월 전부터 예찰트랩을 이용한 조사를 실시하여 토마토뽕나방이 발견되지 않은 농가에서 생산된 토마토만 일본 수출이 가능하다.

◇ 김정희 검역본부장은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일본으로 토마토 수출이 지속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으며, 앞으로도 꼼꼼한 농가관리와 철저한 예찰을 통해 대(對)일 토마토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토마토 재배 농가의 적극적인 방제를 요청했다.

아태지역 식물검역전문가, 국제기준 논의 위해 모였다



◇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아태지역 식물검역전문가 및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관계자를 초청해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이 매년 제·개정하는 식물검역 국제기준안 논의를 위한 「아시아 태평양지역 워크숍」(이하 워크숍)을 서울에서 9월 2일부터 9월 6일까지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검역본부가 2006년부터 개최하고 있는 이 워크숍에 한국, 호주, 뉴질랜드, 중국, 일본 및 아시아 태평양 지역 16개국 식물검역 전문가 30명이 참가하여 '과실파리 무발생 지역 설정' 등 최근 현안에 대한 참가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 고병구 검역본부 식물검역부장은 "앞으로도 식물검역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국제농림협력사업 추진을 모색하고, 식물검역 관련 국제기구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아시아 지역에서 선도적 역할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외국의 농산물 수출검역요건은 농림축산검역본부(www.qia.go.kr) > 수출식물검역정보 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식물검역 이슈는 월 1회 발행됩니다. (문의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출지원과 054-912-0623)